

지역 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공제' 가입

중기중앙회, 사업재기 등 도와 광주·전남 가입자 9만여명 달해 무담보·무보증·무이자 등 '각광' 소득공제·압류보호 등 혜택 다양

사장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노란우산)'가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서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적으로 부금 25조원과 172만명의 재직 가입자 수를 달성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9만5736명이 가입하는 등 출범 16년 만에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 있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제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계약자

에 한해 제공하는 부금 내 대출 상품으로 모두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된다. 일반, 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 5가지 대출 상품으로 운영되며 일반대출을 제외하고 모두 무이자로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소상공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부금은 매월 일정금액(5만원-100만원)을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한 부금에 대해 폐업 시 압류로부터 보호 △연 복리 적립 △부금 내 대출 △무료 상해보험 △다양한 복

지서비스 △전자채장려금 지원(매월 2만원씩 최대 12회 적립) 등이 있다.

광주 지역에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기존 업장을 매각한 뒤 재창업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해 12년째 이용 중이다.

A씨는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됐다. 이후 재창업을 위한 재기자금 필요했을 때 노란우산 덕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이 어려워 난감했으나 공제대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노란우산은 사업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많이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66-9988) 및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모바일앱 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금호타이어, 신규 캐릭터 '또리' 선배

금호타이어가 최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EnnoV(이노브)' 출시와 함께 전기차용 타이어를 캐릭터화한 '또리' (사진)가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또리(Thory)는 '타이어의 신'이라는 세계관에 착안한 또로(Thoro)와 로로(Roro) 사이에서 탄생한 전기차용 타이어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또로(Thoro)와 배터리(Battery)의 합성어다. 또리의 초기 캐릭터(탄생 1개월)는 타이어 귀를 가진 또로와 달리 EnnoV 브랜드의 고유 칼라인 민트색의 날개 귀와 함께 전기 심볼이 들어간 눈동자를 갖고 있다.

또리는 앞으로 1개월, 1년, 5년 등으로 성장하는 에피소드를 담아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 개발과 발전이 중심이 돼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또리는 금호타이어 광고뿐만 아니라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캐릭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라는 기업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금호타이어의 유튜브(엑스타 TV)와 인스타그램이다.

'엑스타 TV' 채널에서는 또로로로가 직접 거리로 나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또로로로 챌린지 등 소비자들과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구독자 10만명을 돌파, 실버버튼을 획득했으며 현재 글로벌 타이어 업체 중 최다 구독자(18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MZ세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인스타그램(계정 thoro.roro) '타이어의 신 또로'를 기획 연재하며 '타이어'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럭셔리 중형 SUV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 (사진)을 8일 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GV70은 약 3년 4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재탄생했다.

GV70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해 한층 세련된 내외장 디자인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향상된 정숙성으로 강화된 주행 감성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감성·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다듬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이 반영된 헤드램프에는 MLA(Micro Lens Array) 기술을 탑재해 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후면부는 기존 범퍼에 위치했던 방향지시등을 리어 콤비램프와 일체화 함으로써 두 줄 그래픽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인성을 높이고,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제동등(HMSL, High-Mounted Stop Lamp)의 형상을 직선화해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제네시스는 GV70에 역동적인 내외장 요소를 더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한다.

GV70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380만원 △3.5 가솔린 터보 5930만원이며, GV70 스포츠 패키지는 △2.5 가솔린 터보 5695만원 △3.5 가솔린 터보 6265만원이다.

최권범 기자

삼성, OLED 모니터 판매 1년만에 글로벌 1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34.7%

삼성전자가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1년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34.7%, 수량 기준 28.3%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20.8%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5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 'OLED G8 (G85 SB)'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 (G95SC)'을 내세워 OLED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4'에서 OLED 모니터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32형·4K 해상도·16:9 화면비·최대 240Hz 주사율·0.03ms(GTG 기준) 응답속도의 '오디세이 OLED G8 (G80SD)' △27형·QHD 해상도·16:9 화면비·최대 360Hz 주사율·0.03ms(GTG 기준) 응답속도의 '오디세이 OLED G6 (G60SD)' △기존 모델에 신규 기능을 탑재한 24년형 '오디세이 OLED G9(G95SD)' 등을 올해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캐스퍼-쿠키런: 킹덤' 콜라보 이벤트

현대차는 8일부터 22일까지 캐스퍼와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쿠키런: 킹덤'은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쿠키들의 이야기를 통해 펼쳐지는 모험과 전투뿐만 아니라 왕국을 건설하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플레이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번 '캐스퍼-쿠키런: 킹덤'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캐스퍼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공개하고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 게임 속 세계관을 적용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내 7일 동안 게임에 접속해 '쿠키런: 킹덤' 출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캐스퍼와 협업해 새롭게 디자인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캐스퍼 온라인 홈페이지 '내 차 만들기' 화면에서 '융합한 쿠키' [1]가 그려진 배너를 클릭해 쿠키런 계정을 입



력하면 추첨을 통해 '캐스퍼 디에센셜'을 받을 수 있는 '내 차 만들기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에서는 전시 공간을 쿠키런: 킹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꾸며 고객들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내 조성된 체험존 및 포토존에서는 캐스퍼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게

임 캐릭터들의 디오라마 [2]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캐스퍼 차량 전시존에서는 쿠키런: 킹덤과 콜라보한 랩핑카 [3]를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스튜디오 내 숨겨진 4개의 QR 코드를 찾아 스캔하면 캐스퍼 시승권과 특별 제작한 스티커, 돗자리 등 콜라보 굿즈가 포함된 랜덤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QR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최권범 기자

이마트 광산점, '키즈라이브러리' 개설

이마트는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복합점사 2층에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13호관인 '광주 광산점'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지난 7일 열린 개관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손천식 이마트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 손식 아이들과미래재단 팀장이 참석했다.

키즈라이브러리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설립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 체험 공간으로 누구나 무료

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이번 '키즈라이브러리 광산점'은 외부 자극에 민감해 조용히 독서가 어려운 아동과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읽거나 누워서 독서가 가능한 공간이다. 총 4000여권의 도서와 함께 익숙한 사람과 단둘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텐트형 독서 공간과 그리고 블록놀이공간이 함께 조성돼 있다.

이마트는 교육과 문화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 아동들에게는 쾌적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육아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즈라이브러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